

• 주요뉴스 •

[New Year New Plan] 〈서울경제〉인터뷰 中

“벤처 재도약 위한 원년되어야”



▲ 장흥순 회장

“재도약할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올해에는 다양한 벤처활성

화 방안 마련 및 윤리교육 강화, 기업 인수합병 요건 완화 등 3가지 측면에서 협회와 벤처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장흥순 회장은 지난해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데다 주식시장 침체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에는 재도약을 위한 원년이 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벤처산업을 지방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각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체(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장 회장은 “벤처넷을 통해 기업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힘을 들이지 않고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중기청에서 이관한 벤처넷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의 호응도도 높아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민족네트워크 규모와 조직을 확대해 인적네트워크 형성, 정보와 기술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고, 특히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IT) 비즈니스 모델을 수출할 계획이다.

벤처산업 육성과 코스닥시장 건전화에 위한 정책 건의도 마련했다. 데이트레이딩 등 단기투자보다는 20~30% 가량의 장기투자 기반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실기업 퇴출요건을 강화해 시장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20%로 제한되어 있는 주식소유 폭을 늘려 기업들이 생존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기업인수합병에 나서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최대과제는 인력난해소”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38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점을 뒀어야 할 중소기업 정책은 인력문제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33.1%로 가장 많았다.

정부의 벤처기업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벤처정책을 조기에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재정비 및 활성화’ (13.7%),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1.7%) 등이 벤처정책 관련 중점 추진 과제로 꼽혔다.

이밖에 중소기업들은 자금정책에서는 정책자금규모 확대 (21.4%)를, 수출정책에서는 해외진출 인프라구축(39.9%)을, 판로·유통정책에서는 시설·경영의 현대화 및정보화 촉진 (21.8%)을 각각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유사기관을 통폐합’ (52.3%)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등록요건 대폭 강화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올 상반기 중 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등록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 마련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요건 면제 등 기존의 낮은 진입요건으로 인해 기준미달의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해 시장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상반기중 벤처와 일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등록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코스닥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 △M&A 수요기반 확충 △우회등록규제의 차별화 및 세제지원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1분기 내에 공청회를 열고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우량·비우량기업간 시장이원화 등 등록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장감시 및 심리기능을 강화하고, 나스닥시장과의 핫라인 구축 추진 등 해외증권시장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정책동향

과기부,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적극 나서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는 기업 연구클러스터 확대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지원사업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클러스터지원사업은 산업·경제적 비중은 크지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요 기술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클러스터를 형성해 공동으로 기술 해결을 지원, 클러스터별로 1개 이상의 세계일류기술을 개발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연 연구개발인력지원사업(가칭)'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연의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일정금액 및 일정기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박사연구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해외 물류센터 설치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수출 벤처·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출품에 대한 AS 요구에 대처하고 물류창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보스턴 산업단지에 AS·물류센터를 설치, 오는 3월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해당 수출품목을 △부품소재 △반도체 관련 장비 △의료·정밀기기 △컴퓨터·광통신 장비 및 기술 등 4~6개 품목으로 선정, 분야별로 현지 기술자를 채용한 후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하자 상담에서 수리까지 현지 AS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 AS·물류센터 운영으로 AS 보증이 가능해져 수출 벤처·중소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다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보스턴센터의 성과에 따라 미국 서부 및 유럽·중국 등 주요 수출 지역으로 AS·물류거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술동향

과기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용자 신청접수

과학기술부(장관 채영복)는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2003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용자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용자는 일반담보대출(400억원)과 기술담보대출(500억원)로 구분되며, 용자기간은 각각 7년과 5년으로 연4회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과학기술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후속 연구개발사업이나 미래 유망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다.

과기부는 특히, 기초 연구의 활용 및 미래 유망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체에 용자금 우선 지원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용자 한도는 동일 사업당 20억원, 한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당 60억원 한도 내에서 용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기술(KT) 인증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병행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까지 지원 가능하며 일반담보대출로 한정한다. 기술력(성)평가 시 우대 기업 조건으로는 KT마크, NT마크, GR마크, 건설신기술 인증기업 및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IR52장영실상, 벤처기업상, 대한민국의특허기술대전 수상기업 등이다.

중기청, 보유장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청은 각 지방 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등 지방 중기청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강화 한다.

전국에 소재한 12개 지방 중기청이 보유한 400억원 상당의 4500여개 고가 시험·연구장비를 중소기업에 전면 개방해 개발중인 제품의 성능·품질을 분석하고 기술컨설팅까지 제공해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주도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장비이용 수수료를 '무료' 수준에 가까운 대당 1000원으로 책정해 중소기업의 개발비용을 연간 30억원 정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과 협력생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기술연구회'를 올해에는 지역특화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각 지방 중기청별로 결성해 25개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개발자금, 이전기술개발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기술개발과 관련한 자금을 각 지방 중기청을 통해 지원한다.

중기청 기술정책과 송재빈 과장은 "올해부터는 지방 중기청을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센터'로 탈바꿈해 연구기관이 취약한 지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동향

중소 경영컨설팅 1750개사 지원

선박 에어벤트 헤드를 생산하는 광산(대표 김홍순)은 경영혁신 컨설팅을 받아 지난해 경상이익 구조를 380% 개선했다.

이 회사는 '전사적 경영혁신 프로그램(경영시스템 및 의식구조 혁신)'으로 납기준수율을 이전의 78%에서 98%로 끌어올렸고 생산 리드타임도 2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자재 결품율은 24%에서 1%로 고객 클레임은 월 7건에서 1건으로 개선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은 컨설팅한 우수 지도사례를 모아 '성공기업 스토리'를 발간한데 이어 올해 79억원을 들여 1750개업체를 컨설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 애로기술의 문제점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에 51억원을 투입해 1210업체를 컨설팅한다.

중진공이 중소기업 지도를 위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는 100여 명이며 지도가 어려운 특수분야지도는 3800여 명의 위촉지도사를 활용해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부품·소재 전문 창투사 등장한다

전자부품연구원(원장 김춘호)은 나노부품·나노바이오·세라믹부품·이동통신RF부품·광부품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한 부품·소재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창투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부품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데 이어 최근에는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연은 이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자본금 100억원의 창투사 설립을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1·2차 조합 결성을 통해 총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1차 조합은 6월까지 결성, 하반기부터 투자에 나서게 된다.

부품연 백병남 본부장은 "그동안 부품·소재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창투사가 없어 신기술을 개발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창투사가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경우 벤처기업은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부품연은 연구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동향

[IT] 인수위, IT자문단 구성 운영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IT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인수위가 분과별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한 일정에 따라 IT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 중 인선작업을 마치고 자문단 발표와 함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자문단은 벤처기업과 통신서비스사업자 등 관련 기업들을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 학계와 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선기간에 IT 분야를 보좌한 인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10대 국정과제와 관련한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BT] 정부 생명공학분야 전략기반 확충 필요

기초기술연구회가 주최하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생명공학연 연구정책부 최용경 부장은 국가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최 부장은 △전략적 선택과 집중 △벤처집적화 거점창출 및 육성지원정책 강화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최 부장은 또 미래 대비형 거대 국가전략기술 기반을 확충하고, 동양인 특이질환 적용 맞춤형의약 개발과 전통산업이 접목된 BT제품개발, 그리고 입자가속기 인프라를 활용한 구조유전체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NT] '펨토초' 미세가공술 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세채 박사는 다중광자 흡수율이 큰 유기 박막에 펨토초 레이저 간섭원리를 이용한 다층홀로그래피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세대 광기록 장치 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로 가공면을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레이저 분광 기술을 적용, 가공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따라서 첨단소재 분야에 적용,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에 기존의 펨토초 레이저 광조절기술을 접목, 새로운 초미세 재료가공 및 공정기술을 개발해 미래첨단 사업분야의 기반기술을 독자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